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전북대, 'The Best AI University' 도약 위한 비전 · 5대 목표 제시

120억원 투입… 룰 기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정보보호 강화

학생 편의 강화한 비교과 통합관리 · 모바일 이용 시스템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2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미래를 이끄는 대학, 글로벌 TOP 100'을 지향하는 전북대가 정보화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사와 행정,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이른바 'With AI 시대'를 선언한 것.

이를 위해 전북대는 16일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취임 이후 줄곧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해왔다. 'The Best AI University'라는 비전과 함께 △All Digital, △Data Driven, △Intelligent Service, △Cloud First, △Trusted System 등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정보혁신처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을 기획했다. 특히 지난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완료해 정보화 중장기 비전 및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전북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사, 행정,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데이터 표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향후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시, 학적, 수업, 수강, 등록, 장학, 졸업, 성적, 취업 등 학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학사정보서비스도 개발한다.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비교과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학생들이 본인의 비교과 활동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비교과 통합관리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의 접속 및 인증 채널을 단일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편의성이 강화된 통합 포털 서비스를 구축한다. 학생들을 위한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주요 화면에 영문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립대 최초로 룰 기반의 업무 규칙 관리 솔루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졸업, 입시, 교원업적 등 복잡한 규칙이 적용되는 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규칙을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차세대 방화벽시스템 및 네트워크 위협탐지 솔루션을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암호화 솔루션, 2단계 인증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 DB이력관리 솔루션 등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응용프로그램 개발 전 과정은 시큐어코딩 기술을 기반으로 철저한 보안 검토를 거치게 된다.

양 총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정보화 분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북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16일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전북대는 12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은 양오봉 총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동남아에선 어떤 일들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제7회 동향설명회 마련

21~22일 온라인으로 개최… 핵심 쟁점들 논의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는 (사)한국동남아학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과 공동으로 21~22일 이틀간 '제7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주최하는 제4차 아세안 지역설명회를 겸한다. 두 연구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는 한국동남아학회가 매년 발간하는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의 특집호의 핵심 내용을 연구자와 대학원생, 일반 대중 등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학술행사 자리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에서의 핵심 쟁점과 주목할 만한 사회문화적 현상 등을 논의하는 장이다. 매년 8월 열리는 학회의 연례학술대회와 더불어 국내 동남아 학계에서 중요한 학술행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비나 형식으로 전환된 설명회는 첫해부터 각국의 리뷰를 녹화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시하며 더 많은 대중에게 지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후 매년 줌을 활용한 실시간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별로 편집된 영상은 행사 종료 후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관련 영상은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수다.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QR 코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설명회 당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발송하는 줌 링크가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청렴도 1등급 달성' 총력

청렴도 향상 TF 본격 가동

조직 내 · 외부 개선에 초점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2025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난 15일 종합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 협의회를 열고, 청렴도 향상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3일 전략회의에서 "청렴은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전 부서와 학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 TF를 구성 · 운영해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렴도 향상 TF는 전북교육청 내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 팀장으로 구성됐다.

당장 2025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난 15일 종합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 협의회를 열고, 청렴도 향상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청렴도 향상 TF는 △운동부 운영 △현장학습 · 수학여행 · 수련회 관리 △방과후학교 운영 등 외부 체감도 취약분야와 △조직문화 △인사제도 등 내부 운영 문제를 집중 분석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연중 운영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청렴도 향상 TF를 통해 종합 청렴도에서 제기된 취약점을 보완하고,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며 "전 부서와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친 교사들에게 '휴(休) 프로그램' 제공

전북교육청, 23일까지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3일까지 교원의 마음치유 및 충전을 위한 '방학중 휴(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원들의 교육회복력을 높이고, 2025학년도 교육활동 준비를 지원하고자 치유 효과가 높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사전 신청한 도내 교원 240여명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향기치유 △원예치유 △영화치유 △심리상담 △스포츠리듬트레이닝 등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방학중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해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여 교육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특수학급 54개 신 · 증설

전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2개를 신 · 증설한다. 이는 지난해 61학급 신 · 증설에 이은 2년 연속 추진되는 것이다.

2024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 · 증설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26개에 머물던 특수학급 신 · 증설이 지난해에는 61개, 올해는 52개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9학급, 초등학교 28학급, 중학교 8학급, 고등학교 2학급, 특수학교 5학급 등이다.

이 외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를 파악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 특수학급 설치 조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 설립 확대도 계속된다. 장수군 계북면에 들어설 동부산와권 특수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중이다.

또한 군산의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와 전주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16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최종보고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최종보고 직무연수

지난 한 해 연구결과 공유… 학력신장 · 수업 혁신 등 7개 과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6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최종보고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 교사, 참관 희망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학기관 관계자 등 모두 250명이 참석했다.

특히 2024학년도 특별연수 교사 82명은 국내 위탁연수기관인 대학과 전문 관계 기관 등에서 전북교육 정책 관련 주제에 따라 개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특강 및 워크숍에 참여해 교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발표는 △학력신장 △기초학력 신장 △수업 혁신 △진로진학 지도 △미래교육 △교권 신장 △특수교육 등 7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민완성 원장은 "2024학년도 학습연구년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에 확산돼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학력신장을 견인하는 실사구시 연수를 위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고교 연계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

이리공고 기계과 학생 등 참여, 자격증 취득에 성공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6일 고교연계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3~15일까지 운영, 이차전지 원리, 제조 및 성능평가 실무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고교연계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은 이리공업고등학교 기계과, 바이오화학과, 건축과 3개 학과 10명의 고등학생이 참여, 모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었다"며 "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분야의 강의를 들을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차전지신산업선도전문대학사업단 박효식 사업단장은 "고교연계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사와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대학의 장점과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대학의 홍보와 함께 전북특화산업인 이차전지 전문기술의 인재를 양성하고 전북 정주형 이차전지산업 기술 인재로 발돋움 하는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조교 코넥트 워크숍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 13~14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조교 역량 강화를 위한 'KSNU 조교 코넥트(Co-Networking)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립군산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대학혁신에서 학생과 교수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조교들의 역량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조교 70여명이 참석했고, 이장호 총장, 엄기욱 교무처장, 오정근 기획처장 등 국립군산대학교 핵심 보직자들이 함께하며 화합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산=이재춘 기자